



장재화 글·임양 그림 | 144쪽 | 12,000원

분야

어린이(초등) > 어린이문학 > 고전 / 전래동화 / 명작동화

키워드

#한국고전 #초등학교교과서 #고전소설 #역사소설 #박씨 #여성영웅 #병자호란

1차시 박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들어가며

-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이 주인공인 고전소설을 말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글을 참고하여 박씨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여인들과 다른 점을 말해 봅시다.

박씨는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성의 미덕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당시 여성들은 부지런하게 살림을 챙기는 현모양처(어진 어머니이면서 착한 아내)여야 했고, 집안의 일은 바깥에 이야기하지 않아야 했으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또 그때 여인들은 재주가 있더라도 글이나 그림,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

2. <박씨전> 내용들을 참고하여 박씨가 어떤 인물인지 빈칸을 채워 봅시다.

박씨는 깜짝 놀라 말했어.
“옛말에 ‘임금 섬기는 날은 많고 부모 섬기는 날은 적다.’라는 말이 있지요. 남자가 나랏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부모를 보살피는 날보다 나랏일에 몰두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당신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까지 당신을 따라가면 나이 든 부모님은 누가 모시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남아 부모님을 모실 테니, 당신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에 힘쓰세요.”
이 말을 들은 시백이 감격하며 말했어.
“부인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소.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소. 부인은 부디 이곳에 남아 부모님을 잘 모셔 주면 정말 고맙겠소.”

(공(나랏일))와/과 (새(집안일))을/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다.

박씨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슬프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지.
“제가 복이 없고 얼굴이 못난 탓에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떨어져 지내는 탓에 서로 화목하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있지요. 차라리 저를 없는 사람이라 여기시고 뒤뜰에 작은 초가집이라도 하나 지어주십시오. 저는 그곳에서 지내는 게 낫겠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주적인) 인물이다.

계화가 피화당에 홀로 있는 박씨를 위로하며 말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아가씨만은 피화당에서 이토록 쓸쓸히 지내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저조차도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팔자와 길흉화복(좋은 일과 나쁜 일)은 다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탕 임금도 하나라 걸왕에게 붙들려 갇혔고,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채에게 욕을 보신 게 아니겠느냐? 하물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야 따로 말해 무엇하겠느냐?”

박씨는 (**너그러운, 어진**) 마음을 가진 인물이다.

생각 넓히기

- <박씨전> 내용을 참고하여 박씨가 직접 오랑캐를 물리치지 않고 계화에게 시킨 이유를 찾아 빈칸을 채워 봅시다.

계화가 이를 비웃으며 말했다.

“네 처지가 참으로 우습게 되었구나. 자기 입으로 대장부라면서 나 같은 여인 하나 당해내지 못하느냐? 너 같은 게 어떻게 한 나라의 대장이 되었으며, 어찌 다른 나라를 치려고 왔단 말이나? 너같이 짓비린내 나는 놈을 보내는 네 나라의 왕도 알 만하구나. 네놈이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 오늘 네놈이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순순히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계화는 칼을 크게 휘둘러 용울대를 베었어. 용울대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지자 계화가 그 머리를 칼에 꽂아 들고 피화당으로 들어갔지. 박씨가 그 머리를 받아 밖으로 내버렸는데, 그제야 비로소 바람과 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맑아졌어. 계화는 용울대의 머리를 집어 뒤뜰 높은 나무에 매달아 그 앞을 지나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어.

계화는 박씨의 여종으로 박씨를 (**대리**)하여 직접 적장과 마주하고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박씨를 직접 내세우지 않고 계화를 통해 박씨의 (**신비함**)을/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직접 나서기를 꺼리는 (**양반**) 여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활동하기

- 다음에 제시된 말들 가운데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고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상냥하다 너그럽다 꼼꼼하다 대범하다 용감하다 솔직하다 암전하다
 겸손하다 조심성 있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의존적이다 독립적이다

2차시 어떤 아름다움이 더 중요할까요?

들어가며

- 부모가 결혼할 상대를 정해주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박씨전>의 ‘박씨’와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허씨’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박씨전>

신부는 내내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는데, 정면에서 본 그 얼굴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 너무 흥측해서 고개가 절로 돌아갈 정도였지.

얼굴이 어땠느냐고? 피부는 거무죽죽한 데다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었고, 그 구멍에는 더러운 때가 가득 차 있었어. 입과 코는 거의 달을 지경이었는데, 입은 두 주먹을 넣고도 남을 만큼 크고, 코는 깊은 산속 울퉁불퉁한 바위 같았어. 이마도 넓데데하고 눈은 달팽이 집처럼 푹 튀어나와 있었지. 거기에 머리털도 부스스하게 엉켜 있어 정말 처참했어.

<장화홍련전>

계모 허씨는 얼굴은 한 자가 넘고, 두 눈은 통방울 같고, 코는 질병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같이 크고, 목소리는 이리와 승냥이 소리 같았다. 허리는 두어 아름이 되고 팔은 꼬부라지고, 통통 부은 다리에, 아래위 찢어진 입술에다 주둥이가 길어 칼로 썰어놓으면 열 사발이나 될 지경이었다. 얼굴은 쇠로 엮어 만든 명석 같으니 차마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김새가 흉측했다.

	박씨	허씨
차이점		
공통점		

2. <박씨전> 내용을 참고하여 상공이 박씨를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상공이 크게 화를 내며 부인을 나무랐어.
“아무리 빼어난 미인이라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이오. 그토록 아름답다던 양귀비조차 ‘나라 망친 여자’ 소리를 듣지 않소? 나는 우리 며느리가 비록 인물은 못났으나 덕이 있을 거라 믿소. 인물이 못나도 덕이 있으면 집안에 복을 가져다줄 것이오. 언젠가 분명 며느리 덕에 우리 집안이 크게 빛나게 될 것이니 부인은 부디 며느리를 잘 대해 주시오.”

생각 넓히기

● 다음 그림과 그 설명을 참고하여 옛날의 미인과 오늘날의 미인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신윤복, <미인도>

고개를 살포시 숙인 옛된 얼굴에 초승달같이 가느다란 실눈썹과 쌍꺼풀 없는 고운 눈매, 다소곳한 콧날에 단정하게 다문 작은 입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 그리고 귀밑에 하늘거리는 머리털, 가늘고 긴 흰목과 좁은 어깨는 조선시대 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활동하기

● <박씨전> 내용을 참고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한지 외모가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에도 ‘사람이 덕을 몰라보고 얼굴 예쁜 것만 찾으면 집안이 망한다.’ 하지 않았느냐? 아내가 얼굴이 좀 못났다고 그게 그렇게 구박할 일이나? 그래서 도대체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는 못생겼으나 재주와 덕이 있어 남편을 삼국에서 으뜸가는 인물로 만들었다. 만일 제갈공명이 아내의 외모를 탓하며 내쫓았다면 영웅호걸이 되지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도 못했을 것이다. 네 아내도 마찬가지다. 인물이 못났어도 남을 뛰어넘는 비범한 재주가 있을 것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3차시 박씨는 어떤 재주가 있나요?

들어가며

- 초능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 <박씨전>과 관련된 다음 내용들에서 박씨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빈칸을 채워 봅시다.

그렇게 박씨는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옷을 짓기 시작해. 촛불을 밝히고 바느질을 하는데 박씨의 바느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말이야. 열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하고, 이삼이 걸려 만들 것을 하룻밤 사이에 다 만들어내는 거야. 도와주러 온 바느질꾼들도 입을 벌리고 박씨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그저 구경할 뿐이었지.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필수 덕목인 (바느질)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박씨는 하필이면 피부가 험고 털이 빠지는 병에 걸리고 비쩍 마른 것을 사 오라고 한다. 사람들과는 반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인들은 이백 냥을 말 주인에게 주지 않고 숨긴다. 그 말은 닷 낭밖에 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말 주인이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천리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보지 않고도 알아차리고 돈을 다시 말 주인에게 가져다주라고 말한다.

박씨가 말을 기른 지 3년이 지나자 훌륭한 말이 된다. 그러자 박씨는 이 말을 중국 사신에게 삼만 냥을 받고 팔아 오라고 한다. 삼백 냥에 사서 삼만 냥에 팔았으니 100배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박씨는 이미 그 말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씨는 집안의 며느리로서 상공에게 (재산)을/를 모을 방법으로 말을 키우자고 제안한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명마)을/를 알아보는 능력도 보여준다.

청나라는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 먼저 기흉대를 보낸다. 조선에 있는 임경업 장군과 박씨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박씨는 다 알고 미리 대비한다.

이시백에게 미리 기흉대가 올 것임을 알려주고, 기흉대를 피화당으로 보내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박씨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독한 술을 기흉대에게 먹여 제압한다. 그리고는 기흉대의 목숨을 살려주고 조선 땅을 침범할 생각을 갖지 말라고 오랑캐 왕에게 전하게 한다. 기흉대를 물리친 공으로 박씨는 임금으로부터 총렬부인의 칭호를 얻게 된다.

박씨는 하늘의 기운을 살펴 미래를 내다보며 (예지력)을 지니고 있다.

장안의 부인들이 모인 곳에서 박씨는 신비한 치마와 저고리를 보여준다. 또한 부인들에게 받은 술잔을 내리쳐서 술잔을 반으로 가르고도 술이 쏟아지지 않고 잔에 담겨 있도록 한다.

용골대는 피화당을 에워싸고 불을 지르고 화약을 터뜨렸다. 하지만 박씨가 나타나서 부채를 부쳐 오히려 오랑캐 무리를 불꽃 속에 가둬 무수히 죽게 만든다. 박씨는 부채를 흔들기만 해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으며, 시비인 계화가 나서기만 해도 오랑캐와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박씨는神通한 (**도술**)을/를 부려 오랑캐를 제압한다.
박씨는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

생각 넓히기

- <박씨전> 내용을 참고하여 박씨가 상공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빈칸을 채워 봅시다.

상공이 박씨에게 물었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구나.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이젠 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사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 땅에 이를 알아볼 사람이 없을뿐더러 마땅히 쓰일 곳이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다르지요.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 사신을 이를 알아보았기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 간 것입니다.”
“너는 만 리 밖의 일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구나. 만일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분명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자로 태어난 게 참으로 아깝구나.”

박씨는 (**명마**)을/를 알아보았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알아볼 사람도 없고 쓸모도 없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멀리했던 이시백과 사람들을 비판하는 뜻도 담겨 있다.

활동하기

- 다음 제시된 초능력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를 것인지 말해 보고, 그 초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 ① 염력: 정신을 집중하는 것만으로 물체를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② 예지력: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능력
- ③ 투시 능력: 막힌 물체를 막히지 않은 듯이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 ④ 투명인간 능력: 몸이 투명해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능력
- ⑤ 순간이동 능력: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능력
- ⑥ 하늘을 나는 능력: 다른 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

4차시 박씨가 허물을 벗었다고요?

들어가며

- 현재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박씨전> 내용을 참고하여 박씨가 허물을 벗고 나서 달라진 점에 대해 말해 봅시다.

이 말을 들은 시백은 뿔 듯이 기뻐서.
“내가 어리석어서 당신에게 큰 슬픔을 주었소. 이제 와 후회해 봤자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구려. 그 래도 당신이 이렇게 노여움을 풀고 내게 말을 건네니 고마울 따름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밤이 깊었어. 잠시 뒤 박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원앙 한 쌍 이 수놓인 비단 이부자리를 펴며 말했어.
“시집은 뒤로 저는 늘 홀로 빈방을 지켰지요. 이 이부자리는 시집은 뒤 처음 펴보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박씨와 시백은 혼인한 뒤 처음으로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

2. 박씨가 허물을 벗은 뒤 재상 덕 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해 보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박씨가 허물을 벗고 몰라보게 아름다워졌다는 소문이 장안에 널리 퍼졌어. 그 소문을 들은 재상 덕 부 인들은 달라진 박씨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 그래서 박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
“그동안 건너건너 부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별일 없이 잘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부인께서 신경 써 주 신 덕분에 저희 또한 잘 지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언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만나보는 게 어떨겠습니 까? 이토록 화창한 봄날, 활짝 피어난 꽃과 나무를 구경하며 각자 맛있는 술과 음식을 준비해 즐기는 게 어떨는지요?”
편지를 읽은 박씨는 기쁜 마음에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

3. <박씨전>의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정리해 봅시다.

	전반부	전환	후반부
내용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결혼담)	박씨의 변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박씨의 활약 (전쟁담)
갈등	가정 내 갈등		(사회적) 갈등
차원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유교적 이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생각 넓히기

- 다음 글을 참고하여 박씨가 허물을 벗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통과제의(通過祭儀)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치게 되는 탄생, 성년, 결혼, 죽음 등에 따르는 의례를 말한다.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지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기 전에는 심 봉사의 딸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소녀였다. 그런데 인당수에 빠져 죽은 뒤에 오히려 연꽃에 싸여 다시 태어나 황제와 결혼하여 황후가 된다.

이때 인당수에 빠져 죽는 것을 상징적 죽음이라고 한다. 신분이 낮고 가난한 심청이는 절대 황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인당수에 빠져 죽음으로써 황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어린 소녀였던 심청이가 어른인 심청이로 거듭나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 소녀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들을 통과제이라 할 수 있다.

활동하기

- 박씨가 허물을 벗는 것과 오늘날의 성형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본래 성형수술은 의학적으로 상처를 입은 부분이나 선천적인 기형 또는 미적으로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하여 외과적으로 교정하거나 회복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요즘은 이런 의학적인 면에서보다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연예인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지상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아울러 한번 성형을 하고 나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 성형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5차시 병자호란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박씨전> 내용을 참고하여 당시 조선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해 봅시다.

“하늘의 기운을 보니 지금 조선에는 간신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진 인재를 싫어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급히 군대를 일으켜 조선을 공격하되 북쪽으로는 가지 말고 곧바로 동해를 건너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선의 동대문을 무너뜨리면 쉽게 조선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힘센 장수를 뽑아 북쪽 길을 막으십시오. 그러면 임경업이 군대를 움직이기 어려울 터, 반드시 우리 쪽이 이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청나라 왕은 매우 기뻐하여 한유와 용골대를 대장으로 삼고, 군사 십만을 그들에게 주어 조선을 치게 했어.

2. <박씨전> 내용을 참고하여 전쟁의 원인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해 봅시다.

임금과 신하는 산성에 갇혀 꼼짝을 못 하고 있었어. 식량도 다 떨어져 가는 데다 매서운 추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조판서 최명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임금에게 아뢰었어.

“전하, 이제 더는 버틸 식량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임금은 하는 수 없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글을 써서 청나라 군대에 보냈어.

사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늘의 운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적에게 몰래 정보를 흘리고 다닌 김자점 때문이기도 했어. 성안에 있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김자점을 두고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 욕했지.

생각 넓히기

-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박씨전>이 쓰인 의도를 생각해 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 봅시다.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에 청나라 태종이 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말한다. ‘병자년에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병자호란이라고 부른다. 청나라는 정묘호란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침략했지만 실제로는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조선을 군사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하여 청나라의 포위 속에서 극심한 추위와 싸우며 버텼으나 식량마저 끊어져 청나라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하는 의식을 치르며 전쟁이 끝났다. 두 달밖에 걸리지 않은 짧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항복 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등 수많은 전쟁 포로가 발생하면서 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박씨전>에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이/가 드러난다. 우리는 비록 청나라에게 패했지만 완전히 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이겼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 소설은 치욕스러운 역사에 허구를 입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를 세우고자 하였다. 또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안**)을/를 주고자 했다.

활동하기

-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6차시 박씨는 왜 용골대를 놓아주었을까요?

들어가며

- 전쟁 포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박씨가 동생인 용골대는 죽이고 형인 용골대는 살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한편 조선의 항복을 받은 용골대는 한양 성내로 들어갔어. 그런데 용골대는 성안에 들어오자마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돼.

“용골대 장군이 웬 여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용골대는 목 놓아 울고는 복수하리라 다짐했어.

“이미 조선 왕의 항복을 받고 오는 길이거늘, 누가 감히 내 동생을 죽였단 말이나? 오늘 내가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용골대가 군대를 몰고 이시백의 집으로 향했어. 그리고는 그 집 뒤뜰 나무 위에 걸린 동생의 머리를 발견한 거야.

용골대는 (허구적) 인물이고 용골대는 (실제) 인물이다.

아무리 소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살아 돌아간 용골대를 죽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역사적) 사실은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2. 박씨는 청나라에서 세자와 대군을 데려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막지 못한다고 하지만 왕비는 구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며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소설에서 박씨는 세자와 대군을 모셔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거역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하늘의 뜻이란 (역사적 사실)을/를 일컫는다. 실제로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하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게 된다. 하지만 왕비는 잡혀가지 않았다. 이미 지나가 버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은/는 박씨의 재주로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왕비를 구출하는 내용을 넣어두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박씨의 뛰어난 (업적)을/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는 조선의 왕자들과 백성들이 잡혀간 원통함을 심리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이다. 왕자나 백성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왕비를 잡아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가 되었을 것이다.

3. 임경업 장군이 다음과 같이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임경업은 이들이 오랑캐임을 한눈에 알아봤어. 바람같이 적진에 달려들어 적군 수백을 순식간에 해치웠지. 죽은 병사들의 머리가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 지듯 떨어졌어. 한유와 용골대는 그제야 박씨의 함정임을 눈치채고 급히 군사를 되돌려 도망치려 했어.

그 사이 임경업이 용골대에게 달려들어 번쩍이는 칼로 목을 치려 하는데, 용골대가 다급히 조선 왕의 항서(항복의 뜻을 적은 문서)를 경업에게 건네는 거야.

경업은 항서를 뜯어 읽고는 칼을 내던지며 울부짖었어.

“슬프고 억울하다. 김자점 같은 간신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 하늘도 어찌 이리 돕지 않는단 말이냐?”

임경업도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용골대 일행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해. 그제야 청의 군사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어.

생각 넓히기

- 박씨가 부인들을 끌러가게 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인들이 실제로 원망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한편 끌러가는 부인들은 박씨를 향해 울부짖었어.

“박씨 부인은 왜 우리를 끌러가게 내버려 두는가? 이제 가면 언제 다시 고향을 보게 될까?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박씨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부인들을 위로하며 달랬어.

활동하기

- 우리가 사용하는 비속어에는 전염병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혹은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제시문을 참고하여 이러한 유래를 가진 단어들을 찾아봅시다.

‘환향녀(還鄕女)’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인질로 잡혀갔다가 정절을 잃은 후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을 이르던 말이다. 이 말에서 ‘화냥년’이라는 말이 나왔다.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몰래 정을 통하는 행실 나쁜 여자를 말하는 비속어이다. 이 말 속에는 우리나라의 슬프고도 뼈아픈 역사가 들어 있다.

- * 쪽팔리다: 시집간 여성의 머리카락을 틀어올려 비녀를 꽂은 머리인 ‘쪽’이 팔려나간다는 뜻으로, 여성의 몸이 팔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라는 의미로 쓰임.
- * 염병하다: 상대방에게 전염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인 장티푸스(염병)에나 걸리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함.
- * 찌똥: 한국전쟁이 끝난 뒤 지뢰를 밟고 다리가 잘린 사람들을 속되게 부르던 말.
- * 호로자식: 흠이 밑에서 자란 자식, 오랑캐 노비의 자식이라는 뜻.

7차시 <박씨전>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일까요?

들어가며

- 역사와 역사소설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박씨전> 내용을 참고하여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비교해 봅시다.

이시백은 평안감사로 제수받아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고을의 사정을 샅샅이 살펴보았어. 아니라 다를까 각 고을의 관리와 수령들 중에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자가 많았지. 하급 관리들까지 나서서 시도 때도 없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다녔으니 말 다 했지.

시백은 관리들의 잘잘못을 가려, 어질게 다스리지 못한 관리에게는 벌을 내리고 잘 다스린 관리는 상을 주고 칭찬했어. 그러자 백성들의 분노는 거짓말같이 가라앉았지. 시백이 감사가 된 지 일 년도 지나지 않아 온 고을에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넘쳤어.

이 소문이 퍼져나가 결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임금은 흡족해하며 시백을 병조판서에 제수하고 즉시 한양으로 불러들였어.



소설 속 이시백은 평안감사를 제수받고, 나중에는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시백은 수원 부사, 양주 목사, 강화부 유수, 병조참판,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거쳤다.

허구와 실재가 일치하는 부분은 (**병조판서**)와/과 (**우의정**) 벼슬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이시백은 (**평안감사**)을/를 지낸 적이 없다. 이렇게 소설에서 실재와 다르게 허구의 벼슬을 추가한 것은 이시백의 (**재주**)와/과 (**인품**)을/를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2. 소설 속에서 허구적인 부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소설 속 이시백은 병조판서가 되어 임경업과 함께 명나라에 (**사신**) (으)로 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이시백은 명나라에 간 일이 없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온전한 허구이다.

소설에서는 이시백과 임경업이 명나라에 갔을 때, 청나라가 가달국의 침략을 받아 이를 물리치기 위해 명나라에게 (**구원병**)을/를 요청했다고 한다. 청나라로 보낼 장군을 구하지 못한 명나라 임금이 이시백과 임경업을 장군으로 삼아 가달국을 물리치게 한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허구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은 허구의 내용을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뒷부분에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이다. 즉 청나라가 (**은혜**)을/를 모른다는 것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다. 병자호란이 (**명분**) 없는 침략임을 강조하기 위해 허구적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박씨전>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박씨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박씨’와 ‘계화’와 ‘용울대’는 허구적 인물이고, ‘이시백’, ‘임경업’, ‘김자점’ 등은 역사적 인물이다. 이와 같이 주인공은 허구적 인물이지만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소설 작품에 (**사실성**)을/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 넓히기

- <박씨전>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임금은 박씨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어. 이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지.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되는구려. 그때 총렬부인의 말을 믿었어야 했거늘. 김자점의 말에 흔들리지만 않았어도…….”
임금이 거듭 탄식하며 말했다.
“총렬부인이 사내였다면 애초에 청나라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몸을 피해 있을 때도 총렬부인은 혼자 집에 남아 청의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느냐. 이는 이전에도 오늘날에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칭찬하며 총렬부인에게 ‘정렬부인’이라는 칭호와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렸어.

잘못된 정치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백성들에게 지배층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활동하기

-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 허구를 사용하여 바꾸고 싶은 사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왜 바꾸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8차시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고요?

들어가며

-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박씨가 이시백에게 하는 말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시백이 이토록 눈물로 호소하자 박씨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하지만 박씨는 냉정한 태도로 시백을 매섭게 꾸짖었지.

“조선은 예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모르니, 어찌 예의를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제가 얼굴이 못났다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습시다. 당신은 다만 아름다움만 찾을 뿐 예의는 새까맣게 잊으셨지요. 아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출세하여 이름을 날릴 생각을 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도 우습습시다. 사람 보는 눈이 그러한데 무슨 수로 효심과 충성을 갖춘 신하를 알아보겠습니까?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저 같은 아녀자의 마음으로도 당신 같은 남자는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2. 청나라 왕비의 말에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청나라의 왕은 조선을 치기 위해 여러 신하를 모아 놓고 물었어.

“이렇게 넓은 나라에 조선 장수 임경업을 당해낼 장수가 없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신하들을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도 선불리 입을 열지 못했어. 그 자리에는 왕비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앉아서 천 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어. 그런 왕비가 왕에게 말했어.

“제가 하늘의 기운을 읽어보니 조선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 있는 듯합니다. 경업을 없앤다 해도 그 인물이 있는 한 조선을 넘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 넓히기

- 다음 글을 참고하여 조선 사회에서 박씨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남존여비(男尊女卑)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뜻이다. 남자를 우위에 두고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문화를 드러내는 말이다. 남존여비는 정치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불평등을 드러내었다. 남자는 이끌고 여자는 따르거나, 여자를 남자의 종속적인 위치로 설정한 ‘삼종지도’,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여필종부’ 등의 용어가 조선 사회에서 널리 쓰였다. 또 유교 경전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거나 “여자는 재능이 없는 것이 덕이다.”라는 말도 있다.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는 이러한 관념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금지시켰다. 여자는 과거를 보지 못하고 벼슬도 할 수 없었다. 또 여자란 본디 남자보다 낮다는 관념은 남자에게 혼인 관계를 무효화시킬 권한을 주었다. 강제 이혼의 요건인 칠거지악(七去之惡)에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남편의 다른 여자를 질투한 경우, 병에 걸린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의 지위나 인격이 근본적으로 비천하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하기

- 다음 글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양성평등은 남자나 여자가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면접을 보면서 여성의 키나 외모를 따지는 것, 직장에서 여성에게 커피나 차 심부름을 시키는 것, 임신했다고 회사를 퇴직하게 하는 것, 무거운 물건은 반드시 남성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그렇다.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한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기 쉽다.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녀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고치고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남자건 여자건 우리 모두가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